았을때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양계협회 종사자들의 수평적인 카운셀링이다.

인간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수직적 삶 보다는 수평적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 맥을 잇는데 있어 주체자는 여러면의 이슈 (Issue)에서 인식되어진 사항을 종합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계인들의 대표적인 협회는 수평적인 카운셀링을 더욱 피력해야 한다. 이러한 수평적 카운셀링이 아닌 지극히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수직적 카운셀링을 양계인들은 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시적이고 규범에 집착한 나머지 협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지극히 정당한 조언을 버리고 협회의 냄새만 풍기는 처사 역시 맥을 이어나가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제 양계협회는 고정된 체제와 구조의 구속에서 도식적이고 한정적인 사고 방식만을 유출해내는 운영에서 탈피하여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상호보완의 운영방식을 유출해 내야 할것이다.

양계인들과 협회의 개방적 흐름 가운데 정당한 맥(脈)의 본질적 사항이 무엇인가를 자주 되뇌이게 될 때에 양계협회의 전통성 있는 맥은 그 윤곽을 드러내어 가치있는 방향으로 체계화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회원들의 참여없는 협회란 있을 수 없다.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겠거니 하는 피상적인 요구만을 요하지 말아야 한다. 발벗고 참여하는 의식을 기르는게 급선무다.

R. W. 에머슨의 말을 빌려 양계협회에 바라는 글을 맺으려 한다.

「연면(連綿)하는 전통은 가다가는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우화속에 그 자체를 상실하는수도 있지만, 이것을 눈앞에 놓고 사색하여 본다는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전통은 자기의 입각지(立脚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방해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주방의 시계는 항성(恒星)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정확하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회원을 수용하는 협회가 되기를

김 혜 령
(제일화학 마켓팅부)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과 설계에 가슴이 부풀기 마련이다. 더구나 축산업계가 불황이다보니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새해에 거는 기대감은 자연 커질 수 밖에 없다. '86년

●새해소망/양계업계에 바란다

1월 1일이라도 실제는 '85년 12월 31일의 바로 다음날이지만 모든 이들의 거는 기대와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양계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86년도가 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경기가 회복되고 농장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리라고……

지난 '85년에는 사료값이 기대 이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은 '84년만 못했어도 이익율은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아뭏든 '85년이 어두운 시기였음은 누구나에게 공통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86년은 기대이상으로 좋아져야만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겠는가?

경기가 퇴조하고 계산물의 소비가 둔화되는데도 수급조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잉생산이 지속되니 산물가격은 생산원가 이하로 곤두박질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도 생산자들은 속수무책, 행정당국에 거는 막연한 기대와 생산자단체의 활동에 일말의 희망을 걸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애시당초 파장뒤의 담배연기 같은 것이어서 늘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된다. 평소에는 협회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잘 안할 뿐더러 그 필요성을 도무지 느끼려고도 않는 것 같다. 협회자체의 활동이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그 구성원이 적극적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조직이 그렇듯 양계협회 역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양계인들이 만든 단체가 분명한 이상 절대다수의 양계인들이 참여해 양계인의 중지를 모으는 대변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양계인이 참여, 합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정은 어떠한가?

제삼자들이 보기에도 양계인의 협회 참여도가 결여된 것은 아닐까 염려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기능과 역할은 한계성을 띠기 쉽다. 얼핏보면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나 그렇지 못한 회원이나 아무런 차등(?)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누가 굳이 회비를 납부해가며 가입을 하려 들겠는가?

협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G.P. 센터 건립추진이나 check-off 시스템도입 및 계산물 소비촉진 홍보계획 등을 세우고 양계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지혜를 짜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피부에 와닿는 계산물의 가격의 진폭이 너무 크다 보니, 협회에 대해 거는 기대 (가격회복)가 크면 클수록 실망의 심도가 커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듯 싶다.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일은 왜 협회는 보다 많은 회원을 수용하려는 더 나은 방책-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곤란하지만-을 강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면에서 최소한의 정부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계인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재정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양계인들이 합리적으로 뭉쳐 총지를 모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주는 배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이를테면 지난 해에 거론된 바 있는 자조금제도의 장치마련 등이 그런 종류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협회는 양계인에게서 소외되어도 안되고 그 위에 군림해도 안됨을 분명히 재인식하고 모든 양계인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동기유발)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아, 내가 회원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하는 식의 그 어떤 굵직한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협회에 기대되어지는 사업은 소비촉진홍보사업이다. 그러나 한 마디 전제해 둔다면 이 사업은 과거처럼 무조건 '영양이 좋고 싸니 많이 먹으라'는 식이 되거나 매스컴을 통해 떠들썩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 성공한 것으로 치는 식, 즉 外華內貧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이다.

진짜 P.R.은 소비자와의 관계개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목적이 되

어야 하므로 선전하는 내용만큼 맛있고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풍부한 계산물이 되도록 믿을 수 있는 상품생산과 상품화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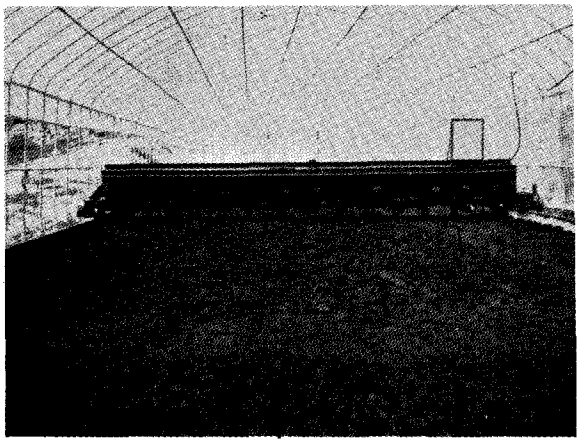
시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비위생적인 닭고기와 계분이 묻어 있는 계란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닭고기와 계란을 많이 먹으라고 홍보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참다운 의미의 홍보라기 보다 강매행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협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예산규모로 보아도 큰 사업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86년 만큼은 큰 행사도 있고, 국민 소득도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소비촉진홍보 사업만이라도 끈기있게 펼쳐 나갔으면 한다. 다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비대중에게 떳떳한 홍보가 되어 달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 모든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될 양계협회가 모든 양계인과 관련업계로부터 사랑받는 단체가 되기를 빌며, 고생하는 협회직원 모두에게 뜻이 같이하는 한 해가 되어 양계업계발전에 큰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86년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

전자동 축분건조 장치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활용



● 특장 ●

○전자동
○연료비가 없음
○무취로 공해가 전혀 없음
○연분 처리 적합
○완전 분쇄 건조
○타이머 부착으로 작동 전후진
○건조계분은 유기비료로 대인기

AUTOMATIC FEEDING SYSTEMS & INCUBATOR

RT 平農畜機

〒180-86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0333) 4-7484
야간(서울) 803-6724